대승 수행 결정체, 평등사상 알리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⑨ 승만경

〈승만경〉은 여성으로써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사자후, 즉 설법을 한 경전으로 〈유마경〉과 더불어 재가자의 설법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한글대장경 〈대보적경〉119권 48 승만부인회(勝滿夫人會)와 〈무량청정평등각경〉,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滿獅子吼一乘大方便方光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승대방편의 뜻을 사자후, 즉 설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멋있다. 부처님의 법에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그들이 속한 사회구조 속에선 여전히 카스트제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일체중생실유불성의 평등론에 입각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회가 변해야 했다. 그것은 긴 기다림이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승만경〉에 등장하는 여성평등의 관점은 초기 대승경전인 법화경시대를 지나고 중기 대승경전시대에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은 많다. 그러나 이 경은 승만이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고 감동하며 청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자의 길, 가장 청정한 여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수행(如來藏)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며 그 수행에 관한 가르침을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불자의 7-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은 이 경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성세대로서 맑고 청정하고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읽기를 권한다.

승만은 코살라국 사위성 파사익왕과 말리부인의 딸로 아유타국 우칭왕과 결혼하여 부모곁을 떠났다. 아버지는 부처님을 만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나니 시집가서 잘 만날 수 없는 딸이 생각나고 그리움에 사무쳤다. 총명한 승만이 부처님을 만나면 더욱 지혜롭고 행복해 질 것이라 여겨 궁녀를 통해 편지를 보낸다. 승만은 부모님의 편지를 이마에 대고 기뻐하며 노래한다.

"부처님 큰 공덕 내가 듣기론 이 세상에 참으로 희유하온 일, 편지 사연 진실로 그러하다면 반드시 공양해야 하리라. 거룩한 부처님! 세상을 이익하려 출현하셨다면 가련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시어 빛나는 그 모습 보여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피하시어 승만 앞에 나타나 광명을 널리 비추시니 왕궁의 모든 이들이 놀라 감동하며 부처님 발에 엎드려 예경하고 귀의하였다.

승만이 다음 생에서도 지금처럼 부처님 뵙고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한다.

"승만이여, 내가 이미 오래전에 너를 위하여 정법을 깨닫게 했고 오늘 다시 너를 만난 것처럼 다음 생에도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르침을 수행하여 보광여래가 될 것이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가득하여 모두 대승에 나아가니 대승을 배우는 이들은 그곳에 태어난다."

부처님과 승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청하자 부처님은 모두 그 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승만이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며 10가지 원을 세우니 대승의 수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실천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처님께 큰 계를 받았다고 해서 십대수(十大受)라 부른다.

"부처님, 저는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계를 지키고, 스승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언제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다른 이의 모습이나 장신구를 질투하지 않으며, 아낌없이 보시하며, 재산이 모이면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돕겠으며, 무주상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난, 병고, 옥고를 치루는 어려운 이들을 항상 구제하며, 정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정진하겠나이다."

이 십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법을 아는 지혜를 반드시 얻고, 이것을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 항상 정법보호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3가지 서원을 세운다. 〈승만경〉에서 청정한 사회는 청정한 자성인 여래의 성품을 찾는 길에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부처님이면 누가 부정한 악인의 삶을 살겠는가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이 경은 말한다.

〈서울 반야사 주지〉

백은 대사의 향취가 느껴지는 언행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⑨ 보살의 제도방편

그 순간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이겠지!' 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의심은 아침 법문을 들어갔을 때 사라지게 됐다.

"그래 두 녀석은 지껄이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네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네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도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내 마음에 대고 비추듯 완벽하게 아는 선지식의 말씀에 흔들리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안정을 찾고 새롭게 선지식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뒤늦게 이때 생긴 선지식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은 나와 같이 의심많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원력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때 선지식께서 언젠가 말씀했던 백은 대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본에 백은 대사(1685~1768)라고 생불로 추앙 받는 유명한 분이 계셨다. 도인을 따르는 수많은 신도 분 중 어느 한 신도의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딸을 추궁하였다. "어느 놈의 자식이냐" 위기에 몰린 딸은 아버지의 급한 성미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둘러댔다. "백은 스님과……." 아버지는 기가 찼다. 그러나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의 아이라니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딸이 아이를 낳자 분기탱천한 마음으로 스님에게 찾아가 아이를 내던지며 "이 아이는 스님의 아이니 받아 기르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스님께서는 "아 그런가!"만 하실 뿐 아무 변명이 없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아기를 정성껏 키웠다. 이렇게 되니 도인의 골이 말이 아니었다. 백은 대사를 존경하던 수많은 신도들은 스님을 파렴치한으로 보게 되면서 스님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백은 대사는 어렵게 탁발하며 아이를 잘 키웠다.

몇 년이 지났다. 하루는 젊은 남녀가 찾아와 엎드려 절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 "실은 저희들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아버님 손에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아 스님의 아기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님은 아기를 내어주시며 "아, 그런가!"할 뿐이었다. 더 말씀이 없었다.

처녀의 목숨을 살리려 갖가지의 수모를 다 견딘 백은 대사는 분명 육신보살이었을 것이며 선지식은 역시 나를 제도하기 위해 백은 대사와 같은 보살행을 했을 것이다. 말로만 듣던 보살행, 경전에서만 보던 살신성인의 제도행(濟度行)을 선지식께서는 나로 하여금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불경(不敬)의 마음에서 공경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선지식의 제도 방편이 없었으면 선지식에 대한 의심을 깨치지 못하고 결국 법당을 떠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공자의 수제자 안회(顔回)와 같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솟구쳤다.

그 사건 이후 선지식에 대한 공경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 하고 종종 체루비읍(涕淚悲泣)하곤 했다. 또 사건이 있은 후 일체유심조의 진리, 유식무경의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됐다. 즉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불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신의 씨가 있어서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음이 먼저이고 결과가 나중이로구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이 뭣고' 의 법륜을 굴려라

'비여암중보(比如暗中寶) 무등불가견(無燈不可見)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수혜막능료(受惠莫能了)' 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등불이 없으면 어둠 속에 보배를 볼 수 없고, 불법이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담았다 하더라도, 전법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배우고 깨쳐서 불도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뜻이다. 즉 전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말이다. 〈금강경 지경공덕분 제십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점심, 또한 저녁 때에도 매일 목숨 받쳐 한량 없는 백천만억겁을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진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 주는 것만 못하겠느냐"고 했다.

이 말을 되새기며 몇 번째 다짐하고 곱씹는다. 하물며 최상승(最上乘) 근기(根機) 만이 수행할 수 있는 심법이자 활구 참선법인 '간화선 이 뭣고' 를 재가자들에게 전법 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에 비교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최상승 근기는 승속을 막론하고 지식의 높고 낮음을 떠나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이 뭣고' 를 수행하는 참불자를 말한다

핫타까 장자가 500여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 뵈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떤 법으로 대중을 이끌어 가는가?" 장자는 답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섭법(四攝法)입니다."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장하다 장자여"라고 하셨다.

사섭법은 보살이 중생 제도를 서원하고 전법하기 위해 행하는 네 가지 기본 행위(行爲)이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미루고 중생계에 머물 것을 원해 일체 중생을 먼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성인(聖人)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등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누구든지 중생을 제도해 성불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불자를 보살이라 한다. 오늘은 사섭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핫타까 장자의 대중전법 비결은 '사섭법'
전법포교 못하면 부처님 은혜 못 갚는 것

첫째, 보시섭(佈施攝)은 재시(財施)로 재물을 기꺼이 베풀어 중생을 가난서 구해주고, 법시(法施)로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모르는 중생에게 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둘째, 애어섭(愛語攝)은 보살이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불교의 진리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행(行)이다. 종교는 항상 중생들에게 따뜻함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러므로 애어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는 이행섭(利行攝)이다. 보살이 자기 몸을 희생해 어려운 일도 마다않고 중생을 돌보며, 말과 생각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선행을 베풀어 불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사섭(同事攝)은 보살의 동체대비심에 의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 몸소 실천하신 분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이다. 스님은 거지와 땅꾼등 소외받는 계층과 함께 생활 하면서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무애가무로 참된 가르침을 펴셨다. 또한 조선중기의 고승 언기 대사도 오도(悟道)한 뒤 양치기를 하면서 동물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닦았고, 숯과 물장수를 하며 대동강가서 걸인과 고아들을 모아 함께 생활하면서 교화했다. 이 모두가 동체대비를 실천한 예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포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불전법도중생(若不傳法度衆生) 필경무능보은자(畢竟無能報恩者)' 이라 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임을 되새기며, 열심히 '이뭣고' 의 법륜을 굴리자.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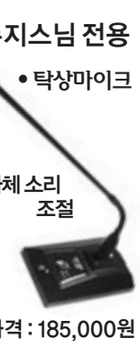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